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9강 박경철 (주)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이사

‘법’ 스스로 지킬때 정의 바로 선다

대립만 남은 보수와 진보

민주당의 책임도 커

안철수, 정치동지 아닌 친구

“문명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과거 그리스인의 사고와 균형을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오늘의 우리다.”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삼우지구 라마다 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아홉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경철 (주)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이사는 2년여 동안의 그리스 여행을 통해 느낀 고대 그리스인과 현대 그리스인 삶의 지혜를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냈다.

박 이사는 이날 강연에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이자 영화 ‘300’의 무대가 된 ‘스파르타’를 소재로 삼았다. 그는 “고대 그리스의 220개 도시국가 중 9500명의 인구에 작은 도시국가인 스파르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법치국가였다”며 “완전한 법치국가를 이룬 배경에는 강력한 응징이나 처벌이 아닌 모든 법에 권한과 책임·혜택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스파르타 왕의 법을 권한 1조에는 왕은 언제든지 전쟁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지만, 왕의 책임 1조에는 왕은 모든 전쟁에서 전투대열 제일 앞줄에 선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왕이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함부로 전쟁을 선포할 수 없고 실정(失政)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법이 처벌하는 것 보다 법 자체가 스스로 지키고 도전하도록 설계 되었을 때 법치와 정의는 구현된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갑과 을의 논쟁을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 법이 갑과 을 양쪽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면 이처럼 큰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또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틀에 갇혀 범주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인들의 아픔도 되짚어냈다. 그는 “우리가 사회라는 시스템에서 인간으로서 깊은 존중을 받고 살아왔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누군가의 자녀, 부모, 직원, 시민, 회원 등의 범주의 부류로 분류됐을 뿐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이해를 받아본 적이



21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시골 의사’로 유명한 박경철 원장이 ‘그리스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가정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 우리는 더 큰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딸’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며 “자녀도 엄연한 인간이고, 인격인데 범주화 내에서 내 자식마저도 범주화해 부른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러한 범주화는 넓게 이념·지역 대립, 갈등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프레임과 틀, 범주에 갇혀버리고 있다”며 “그 범주 내에 속하지 않는 것에 응답하지 않는 문화, 그게 오늘날의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이사는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 “정치적 동지가 아닌 친구다. 힘을 때

민을 들어주는 친구일 뿐”이라며 “그 친구가 가만히 있어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힘든 길을 선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도가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는 5·18 역사왜곡과 폄하에 대해 “그동안은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그러한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토대가 됐던 보수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건강한 보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진보와 보수만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아담인 민주당의 탓도 크다”고 꼬집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조선대 강연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

“광주시민의 희생이 한국 선진화 이끌었다”

5·18 악의적 보도 “광주 두번 죽이는 것”... 역사보존 나서야

“5·18민중항쟁이 북한 소행이라는 내용의 종편 보도는 광주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광주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4대를 이어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어온 인요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이 조선대 경상대학 백악포럼 초청으로 22일 오후 4시 조선대 경상대학 이주현관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인 소장은 2시간여의 강연에서 5·18을 폄하하는 일부 종편과 보수 사이트 등을 의식한 듯, 시작부터 5·18의 역사성과 80년 당시 자신의 회고담을 들려줬다. 과거를 회고할 때는 수백명의 희생자를 떠올리며 비통해 했으며,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격분을 금치 못했다. 특히 광주시민들에게 5·18의 전구화와 정신의 확장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해 감동을 받았다.

그의 당시 회고담이다. “1980년 당시 스물두살로 연세대 의예과 1학년 학생이었다. 그해 5월 25일 순천에서 검문소 7개를 통과해서 광주에 왔다. ‘미 대사관 직원으로 양립동 선교사들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광주를 간다’고 거짓말을 해 검문소를 통과했다. 당시 광주는 항쟁이라고 보기에 희생이 너무 커 대환장 같았다. 나는 광주에서 세 가지를 목격했다. 하

나는 도청 상무관에 시신을 보려고 3000여명이 줄을 서고 있는데, 새치기를 하려 했을 때 시민군이 질서를 지켜달라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도청에서 무전기를 고치던 나이 든 시민군이 젊은이에게 배터리를 사오라면서, 반드시 제값을 치르라며 5000원을 꺼내준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군들이 도청에 남으면 군대의 진압과 정에서 죽을 것이니 모두 도망가라고 하자 대부분이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것이다. 공포와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질서를 유지하며 항쟁한 시민군의 모습을 그가 아직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대목이다.

나는 80년 5월25일 외신기자회견에서 통역을 하며, 3시간 동안 피눈물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그날 시신을 확인한 사망자가 600명이라는 명단을 받았다. 관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명단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광주항쟁이 끝나고 2주일후 미대사관에서 호출을 받았다. 조상들이 한국에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구속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떠나라고 했다. 나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5·18 당사자나 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인 소장은 5·18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



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민주세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3년 동안 5·18의 역사를 올바르게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 자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광주는 5·18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더 이상 5·18을 울궤 먹으면 안된다. 도청건물도 보존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 용서하되 잊지 않아야 한다. 나는 지금도 광주가 자랑스럽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보육대란’ 우려된다

정부 보육예산 지방비 편성 불구 613억 부족... 지자체 비상

정부가 올해 보육비·양육수당 지방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광주·전남지역은 관련 예산 613억원이 부족해 자칫 무상 보육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방비 편성된 영유아보육료는 광주 424억원, 전남 755억원이며 가정양육수당은 광주 118억원, 전남 23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보육비·양육수당은 서울을 제외한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내고 있는데, 지방비 편성은 정부가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테니 지자체도 이 금액에 맞춰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부담

해야 할 지자체 예산을 편성·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시청 228억원 5개 구청 203억원 등 모두 432억원이 부족하고, 전남도는 본청과 22개 시·군에서도 지자체 부담분 181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지자체 부담분 중 일부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해 주겠다”는 말에 따라 올해 예산을 짜면서 보육료 관련 예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국회는 이번 예산과 관련 “지자체 부담이 크니 지자체 부담분 중 77%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직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정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부족분을 마련한 뒤 나중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지자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5~6월 추경과 11월 추경을 통해 보육료 부족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보육료·양육수당 지방비 편성에 전국 지자체가 매칭예산으로 올해 책정해야 할 무상보육 금액은 보육료는 2조5517억원, 양육수당은 904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이 가운데 보육료는 81.1%인 2조685억원, 양육수당은 47.7%인 4310억원만 편성했을 뿐이다.

/오광기기자 kroh@kwangju.co.kr

이 YONAMIA PREMIUM 유스퀘어점
Fusion Family Restaurant

OPEN 요일별 D.C EVENT 50%

OPEN EVENT 5월20일(월), 21(화), 22(수), 23(목), 24(금)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월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on :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 5,400		수 쉐프가 만든 수제 떡갈비 스테이크 Wednes : Made itteokgalbi steak chef 10,800 → 5,400		금 쉐프가 만든 수제 떡갈비 스테이크와 구운 마늘 피자 Fri : Herb garlic cream sauce & beef burger steak and Pizza 14,000 → 7,000		
	화 매콤한 요남자 피자 Tues : YONAMIA Spicy sauce pizza 7,900 → 3,950	목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Thurs :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 5,4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 중앙초교
● ● 주재원 병원 ● ● 고려 주차장
● ● 대한생명 ● ● 구.한미쇼핑 ● ● 동부소방서

북경당 한의원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법 제(88)30-경-26호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담. 나대지
-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 부동산 취득자금
- ▶ 사업자금

※ 자사대출 / 자유상환 /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